

새정치 “메르스보다 무서운 건 정부의 무능·무책임” 새누리 “모든 정보 신속 공개하고 추가 대책 세워야”

여야, 전문가들과 간담회 초당적 대응 선언

여야가 메르스에 당락을 집중할 때이다. 초당적 대응을 선언하면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은 공포와 불안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정 갈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분간 메르스, 메르스. 다른 것은 얘기할 것 없다”고 답했다. 집권여당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추무진 의사협회장, 박상근 병원협회장, 김옥수 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물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메

르스 관련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공포 확산 차단 방안에 대한 발언에만 집중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보건 당국이 자신있게 국민 앞에 나서서 메르스는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 예방해야 한다는 자신있는 입장 발표가 중요하다”면서 “모든 정보를 국민에 신속, 정확히 공개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간담회에 참석한 특위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정보공개 범위를 놓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박인숙 의원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14개 병원이 공개되지 않아 일반 환자들이 병원을 못 가서 문제가 생기는 데 병원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는

“만약 병원 이름이 공개돼 환자들이 더 공포감을 가지고 내원하지 않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을 못 받게 되면 전면적으로 일반 환자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메르스 확산을 막을 각종 제안을 하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면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를 연 것을 비롯해 논평과 브리핑을 쏟아내며 박 대통령과 정부를 성토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정 총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태 차단을 위해 전면적으로 나서

야 한다”며 메르스 위기대응수준의 격상과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강동원 의원은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건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 대통령의 대처 수준”이라며 “대통령의 메르스 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은 세월호 참사 때와 판박이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메르스 대책특위가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사태 수습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과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김지홍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회의료진에 대해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마스크를 지급하는 한편 메르스 신고에 119나 긴급 국가재난 관련 전화번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자가격리는 지역사회 전파를 조절할 수 있고 가족에게 병을 전파하게 된다는 윤리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혁신위원 현역 티켓 1명은 누구

총선 공천권·계파 문제 등 민감한 사안 인선작업 신중

무계파 의원 복수 후보 추천, 위원장 선택 방안도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용 수습을 위해 새선의 칼자루를 혁신위원회로 넘긴 가운데, 당내에서는 내부 위원 자리를 둘러싸고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혁신위는 내년 총선 공천제 개혁을 포함한 당 혁신에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여서 계파 간의 신경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최근 10명의 혁신위원 중 내부인사를 4명으로 제한했고, 이를 현역의원 1명, 기초단체장 1명, 원외의원장 1명, 당직자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룹별 선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에 부여된 티켓 1장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당내 의견수렴 방식을 포함해 구체적인 추천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공천권 등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자칫하면 계파 갈등으로 변질 수 있어 결정 내

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 측에서는 어느 계파로부터도 반발을 사지 않을 인사로 복수 후보를 추천, 김 위원장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그룹들에서도 인선 작업이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기초단체장들의 모임인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주말인 7일 긴급총회를 소집해 누구에게 혁신위원 자리를 맡길지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8 전당대회 당시 ‘여의도에서 벗어난 생활정치 실현’을 외치며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박우섭 협의회장(인천 남구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의원장 협의회 역시 6일 회의를 갖고 인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영춘 부산시장 위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될 전망이다.

당직자들의 경우에도 10명으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 가장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이인제 최고위원이 다른 참석자들과 발언을 경청하거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구당 부활·지역정당 설립 허용해야”

정치개혁특위 공청회, 정치자금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연 정당·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지구당 부활과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외적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 참여, 정당 중심으로 한 참여와 조직을 통해 형성되는 데 그런 측면에서 하부조직을 범으로 강제해 폐지한 건 부적절하다”며 “국회의원들은 의원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어 사실상 지구당이 없어도 불편이 없는 데 경쟁자들은 동일한 입장에서 정치적 경쟁을 펼칠 수 없어 제도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소속 친정배 의원이 광주에서 독자세력화를 선언한 만큼, 새로운 진보 정당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호남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지속적으로 ‘야권연대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취지에 동감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도에 조직을 두도록 한 현행 정당법을 개정,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교수는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영남에서 새정치연합이 효과적 대안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당 간 경쟁을 만들려면 그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정당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에 한해서라도 지방에 기반을 둔 정당이 출현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당 설립요건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는데 완화가 필요하다”며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명문화한 것을 폐지해 지역정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역의 정치자금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비현실적’ 측면이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치자금 공급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진보세력, 하나로 뭉친다

정의당과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등 4개 진보세력이 4일 통합을 거쳐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남은 진보세력 대부분이 집결하는 셈이어서, 야권 재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당 전호선 대표, 노동당 나경채 대표, 국민모임 김세균 상임위원장, 노동정치연대 양규공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정치

제다약을 위해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겠다”며 “올해 안에 더 크고 더 강력한 진보정당을 가시화하겠다. 9월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극복과 노동 존중의 대안사회 건설이 목표”라며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보편복지 확대와 조세정의 실현 ▲노동자 경영참여제 도입과 재벌체제 개혁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통합 결정은 통진당 사태 이후, 위

정의·노동당·국민모임·노동연대 총선 앞두고 새판짜기

“9월까지 통합정당 가시화”... 친정배와 관계 설정 주목

기에 몰린 진보진영의 ‘최후의 선택’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의당은 최근 두 차례 재·보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 4·29 재보선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독자노선을 고수, ‘야권연대의 한축’으로서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민모임도 9월 창당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에 도전한 정동영 전 의원이 패배하면서 독자 창당 계획이 어려움에 봉착했다.

진보 진영이 ‘통진당 후폭풍’에서 벗어

나 지지층을 규합시킨다면 내년 총선에서 선전할 수도 있지만, 야권의 참패를 초래하는 ‘불열의 씨앗’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무소속 친정배 의원이 광주에서 독자세력화를 선언한 만큼, 새로운 진보 정당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호남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지속적으로 ‘야권연대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금연지원센터 계약직원 채용 공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광주를 달성하기 위해 광주금연지원센터에서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채용 분야	채용인원	근무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금연상담사	0명	주 40시간	'15.12.31까지 (근무평가에 따라 2년 이내 재계약 가능)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또는 - 심리학·상담학을 전공했거나 대학원 과정 보건학을 전공한 자
연구행정	0명	주 40시간	'15.12.31까지 (근무평가에 따라 2년 이내 재계약 가능)	-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
운전기사	0명	주 40시간	'15.12.31까지 (근무평가에 따라 2년 이내 재계약 가능)	- 1종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대형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자 ※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캠프 업무 공동진행

※ 남자는 병역 또는 면제자 ※ 본 병원 인사규정 제16조의 경력사용이 없는 자 ※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캠프 등 근무가능자
※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단,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전산 및 관련 자격증 취득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자, 금연관련 연구 및 사업 경험자, 금연치료전문가(GTS)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2. 보수 및 복리후생
가. 약 200만원 (월, 기타 상여금 별도지급 없음)
나. 4대보험, 진료비감면, 주휴일, 연차, 퇴직금(1년 만근시) 등 혜택부여
다. 합격자 신분: 광주금연지원센터에 소속되며 기본운영체제는 광주금연지원센터 자체 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함.

3. 모집방법
가.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수험표, 접수증(사전부착, 홈페이지에서 다운) 각 1부
2)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전학년 평균평점 및 전학년 석차 기재) 원본 1부
※ 편입학한 경우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도 제출
3)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5)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부
6)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확인용) 1부
7)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9)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나. 접수기간: 2015년 6월 3일(수) ~ 2015년 6월 8일(월) 11:00까지
다. 접수처: 조선대학교병원 총무팀 (☎062-220-3580) - 본인 방문접수
- 접수시간: 평일 09:00 ~ 17:00 까지
- 점심시간(12:00 ~ 13:30)에는 접수 받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선대학교병원 홈페이지(https://hosip.chosun.ac.kr/) 채용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문의사항은 조선대학교병원 총무팀(062-220-358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금연지원센터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영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대변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문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의사, 현역사 27-45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444호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